

존 헨리 뉴먼의 『대학의 이념』에 나타난 가톨릭 교육의 정체성 구현 방안 연구

최 준 규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화영성대학원

〈요 약〉

오늘날 종교교육이 직면한 문제는 대개 교육의 종교적 정체성의 구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가톨릭 교육 역시 다른 학문적, 교육적 영역과 마찬가지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정체성을 담보해야 하는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19세기의 가톨릭의 대표적 교육자이자 추기경이었던 존 헨리 뉴먼(John Henry Newman)은 그의 저서 『대학의 이념』(The Idea of a University)에서 가톨릭 고등교육이 추구해야 할 교육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톨릭 교육이 추구해야 할 교육적 정체성을 뉴먼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위해, 본고는 첫째, 뉴먼의 생애와 그의 교육 사상을 약술하였다. 그의 생애는 그의 『대학의 이념』의 저술과 관련된 아일랜드의 가톨릭 대학 건립과 관련된 부분을 부각해서 요약하였다. 둘째, 뉴먼이 대학의 이념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 보편 지식(universal knowledge)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가톨릭 교육의 정체성과 연관시켜 고찰하였다. 뉴먼은 대학이 추구하는 지식의 성격에 따라 정체성 뿐 아니라 교육과정도 달라진다고 믿고 있었다. 셋째, 보편 지식을 형성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조건인 신학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는 신학이 보편 지식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보편 지식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라고 확신했다. 마지막으로 뉴먼의 사상이 오늘날의 대학의 상황과 시대적, 사회적 간격에서 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교육의 이념이 무엇인지, 특히 가톨릭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수월성과 정체성의 구현이라는 도전과 목표에 어떻게 도달해야 할지에 관해 던진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핵심주제어: 뉴먼, 대학의 이념, 보편 지식, 신학, 자유교육, 지성인

I. 서론

오늘날 우리 대학들은 급속히 줄고 있는 학령인구와 재정 압박으로 인해 대학 간의 극심한 경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십여 년 동안 막대한 고등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교육의 개혁을 유도해왔다. 예를 들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위한 BK21 사업, 교육 경쟁력을 위한 ACE 사업, 그 후 인문학 연구소 육성을 위한 HK 사업, 대학과 산업체의 협력을 강조한 LINC 사업, 그리고 최근에 산학연계 교육을 위한 PRIME 사업과 인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CORE 사업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부 사업을 선점하기 위하여 대학들이 벌이는 각축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학 개혁 시도들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은 첫째, 정부가 각 대학의 특수성과 학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경쟁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연구물 양산, 취업률 제고, 교육 경쟁력 상승이라는 외적 변화에만 치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정부가 지나치게 편향된 이공계 중심의 개혁 정책에 집중하면서 균형 있는 대학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중세시기에 대학 제도가 탄생할 때부터 줄곧 견지해왔던 ‘진리에 대한 추구’와 ‘학문에 대한 사랑’이라는 대학 본연의 에토스를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경쟁과 돈과 실적에 매달리는 현재 대학의 모습을 ‘폐허의 대학’, ‘대학의 몰락’, ‘대학의 식민화’, ‘대학의 세속화’로 부르며 개탄을 하고 있다.¹⁾

오늘날 가톨릭 대학²⁾도 이런 대학의 경쟁 구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가톨릭 대학 역시 하나의 대학으로서 학문적, 사회적 명성을 획득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 안에서 가톨릭 대학이 끊임없이 직면하였던 도전은 교육과 연구와 봉사 등 대학의 본연 임무에서 수월성(excellence)을 구현하는 동시에 대학의 고유한 정체성(identity)을 견지하는 이중의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오랜 세월을 통해 가톨릭 대학들은 이런 도전을 아주 진지하고 신중하게 다루었으며, 그 결과 가톨릭 대학이 수월성과 명성을 획득하는 길은 가톨릭의 정체성(identity)과 가톨릭의 이념(idea)과 사명(mission)을 구현하고 발전시킬 때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³⁾

1) 오늘날 대학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박승찬, 「중세 대학의 설립과 발전: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보루」, 『가톨릭철학』, 26(2016), 5-6쪽; 대학의 세속화에 대한 견해는 Burtchaell, J. *The Dying of the Light: The Disengagemen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from Their Christian Churches*,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98 참조.

2) 이 글에서 ‘가톨릭 대학’은 가톨릭계 대학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며, ‘가톨릭 대학교’는 특정한 가톨릭계 대학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3) 이에 관한 논의는 최준규, 「가톨릭 대학과 가톨릭 정체성: Ex Corde Ecclesiae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35(2011.2), 41-66쪽; 최준규 외, 「가톨릭고등교육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가

가톨릭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어떻게 내외부의 거센 도전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원천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한다. 즉 대학 제도의 오랜 역사 안에 존재했던 논쟁과 이념과 지혜를 참고하고,⁴⁾ 대학이 탄생했던 시기에 추구했던 이상과 목적과 사명을 다시 검토하라고 제안한다.⁵⁾ 12세기 대학의 출현 이후 전통을 지켜오고 발전시킨 대학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며, 대학이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가치와 담론과 지식의 본질을 살핌으로써 오늘의 대학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뉴먼(John Henry Newman, 1801-1890)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비록 뉴먼의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엔 시간적 또 공간적 차이가 있고, 그 구체적 상황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국 대학을 둘러싼 모든 논쟁의 이면에는 대학의 본질과 역할, 대학이 추구하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는 점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뉴먼은 올바른 대학 개혁이 언제나 대학의 본질과 이념을 명확히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가톨릭 교육이 수행해야 하는 이중 과제인 학문적 수월성과 종교적 정체성이 모순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뉴먼은 19세기 영국에서 사회적·종교적인 화제의 인물이었다. 그는 일찍이 영국에서 그의 지적 역량을 발휘하여 옥스퍼드 운동(the Oxford Movement)⁶⁾을 이끌었고, 후에 아일랜드에서 최초의 가톨릭 대학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그는 대학의 본성, 대학이 추구할 지식, 그리고 대학의 교육과정의 본질에 관하여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⁷⁾

가톨릭교회와 가톨릭 교육에서 뉴먼이 차지하는 존재감은 대단하다. 교회의 학자이자 추기경이었던 뉴먼은 전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반포한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교황령(Constitution)⁸⁾인 『가톨릭대학교에 관한 교황령(Ex Corde Ecclesiae)』(1990)에서 성경 외에 유일하게 인용된 인물이다.⁹⁾ 또한 그의 신학과 교육사상은 가톨릭교회의

톨릭대학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6(2008), 195-218쪽 참조.

4) 많은 학자들은 현대의 대학이 직면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세의 대학을 연구함으로써 해답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박승찬, 같은 글, 6-7쪽.

5) Tierney, “Portrait of Higher Educ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hn Henry Newman’s ‘The Idea of a University’”, *Leadership in Education*, Vol. 19, No. 1(2016), p. 6.

6) 영국 성공회의 쇄신운동으로서 성공회가 개신교적 성격을 벗어나고 성사, 전례, 관상 등 가톨릭 전통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옥스퍼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1833~1845년 사이에 일어난 운동; 김성태, “옥스퍼드 운동”, 『한국가톨릭대사전』, 제9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6483쪽.

7) J. Morales, “Newman’s Idea of a University Makes Sense Today.”, *Christian Higher Education*, Vol. 2, No.3(2013), p.197.

8) 교황이나 교황청의 공식문서에는 등급에 따른 분류가 있다. 중요한 순서대로 교황령(*constitutio*), 자의 교서(*motu proprio*), 서한(*litterae apostolicae*), 회칙(*encyclica*) 등으로, Ex Corde Ecclesiae는 교황령으로 특히 중요사항을 다루는 최고 권위의 문서이다.

9)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Ex Corde Ecclesia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이자 전환점이 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¹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존 헨리 뉴먼의 공의회’로 불리곤 하였다. 그 이유는 뉴먼 사상 중에서 교회 일치 문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평신도의 역할 등이 그 공의회에서 핵심 주제로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¹¹⁾ 또 그는 『대학의 이념(the Idea of a University)』에서 자신이 지닌 철학적, 신학적, 교육학적 비전을 망라하였고, 이 저서는 역사적으로 가톨릭 대학 교육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¹²⁾

이 논문은 우리 교육, 특히 가톨릭 교육이 해결해야 할 수월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뉴먼의 『대학의 이념』 안에서 그 해결책을 도출해보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뉴먼과 『대학의 이념』에 대해 개관하고, III장에서는 대학이 추구해야 할 지식의 본성인 보편 지식(universal knowledge)에 대해 고찰하고, IV장에서는 보편 지식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신학의 본성과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V장은 결론으로서 뉴먼의 관점을 바탕으로 가톨릭 대학이 자신의 가톨릭 정체성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 교육적·학문적 수월성을 충족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뉴먼 교육 사상을 종교교육학적으로 다루면서 보편 지식에 대한 초월적 인식론과 같은 철학적 담론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뉴먼의 『대학의 이념』에서 다루고 있는 지성인 양성의 교육목표, 자유교육의 교육과정, 교사론 등의 교육학적 담론은 여기서 다루지 못하고 다음 연구의 주제로 남겨두었음을 미리 밝힌다.

II. 뉴먼과 『대학의 이념』

뉴먼은 1801년 영국 런던에서 출생하여 칼빈과 교도였다가, 15세 무렵 명문 일링학교(the Ealing School)에서 성공회로 개종을 하였다. 그 뒤 옥스퍼드대학교로 진학하여 트리니티대학(Trinity College)에서 1820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뒤에 옥스퍼드대학교의 오리얼대학(Oriel College)의 펠로우로 임명되었다. 1824년 그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로 서품을 받았고, 4년 뒤에 옥스퍼드대학교의 성마리아 성당(the St. Mary's Church)의 주임 신부로 부임하였다. 그는 40세가 넘도록 오랜 기간을 옥스퍼드에서 성공회 성직자이자 학자로서 활동했다. 1845년에 그는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였고 1847년에 사제서품을 받았다. 개종 후 그는 죽기 전까지 4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였다. 그는 1879년 레오 13세 교황에

63(1990.12), 4항, 각주 19번 참조.

10) S. Denig, “What would Newman do?: John Cardinal Newman and Ex Corde Ecclesiae”, *A Journal of Inquiry and Practice*, Vol. 8, No. 2(December 2004), p.162.

11) A. Dulles, 『존 헨리 뉴먼: 존 헨리 뉴먼의 생애와 사상』, 윤성희 역, 성바오로, 2010, 225쪽, 233쪽.

12) S. Whittle, “Newman and Contemporary Debates about Catholic Education”, *New Blackfriars*, 96(2015), p.280.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되었고, 1890년 서거하였다. 그리고 최근인 2010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에 의해 시복(諡福, 성인품 이전 단계)되었다.¹³⁾

뉴먼이 『대학의 이념』을 집필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이러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이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1691년 이후, 아일랜드의 영국 개신교도들은 아일랜드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 그 무렵 아일랜드 가톨릭 사제들은 다른 나라로 추방되었고 오로지 식민 정부에 등록된 사제들만 사목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로 개종하지 않는 한 아일랜드에서 가장 전통 있는 트리니티대학(Trinity College, Dublin)에 입학할 수 없었고 교수나 직원으로 일할 수 없었다.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계 대학의 설립을 간절히 원했다. 이곳에서 그들은 마음껏 가톨릭 신학을 배우고 가톨릭 신자 자녀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 좋은 직업을 갖게 되길 갈망했다. 1840년대에 소위 ‘감자 대기근’이라 불리는 대기근(the Great Famine)으로 아일랜드인 중 100만 명 이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었고, 또 다른 100만 명이 이민을 떠나면서 아일랜드의 정국이 매우 불안정해졌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이를 진정시키는 방안으로서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대학의 설립을 허락하였다.¹⁴⁾

뉴먼이 가톨릭교회의 사제로 서품된 지 4년 후인 1851년에 아일랜드의 아르마프(Armagh) 교구장이었고 훗날 더블린 교구장이 된 컬렌(Paul Cullen) 대주교는 뉴먼 신부에게 더블린에 아일랜드 최초의 가톨릭계 대학을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먼은 처음에는 이 요청을 거절했으나, 자신이 영국 옥스퍼드에서 받았던 이상적인 대학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를 수락했다. 1854년에 아일랜드 가톨릭대학교(The Catholic University of Ireland)가 문을 열었고 뉴먼은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뉴먼은 대학이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인재를 배출해야 하는지 등 대학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 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일랜드의 가톨릭 책임자들은 새로 설립된 가톨릭 대학이 로마교회의 수위권과 교황의 무류성(無謬性, infallibility)의 기반 위에 더욱 확고하게 기초하길 원했지만, 뉴먼은 자신의 대학에 그런 맹목에 가까운 종교적 제한 사항을 두길 바라지 않았다. 그에게 진리는 제도보다 앞서고 양심은 교리보다 앞서며, 신앙은 근면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의 이런 태도는 교회의 책임자들이 그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¹⁵⁾

미국 교육학자인 티어니(W. Tierney)는 뉴먼을 매우 역설적인 인물로 평가하였다. 티어니에 의하면, 뉴먼은 종교적 보수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였고, 신앙의 옹호자이자 종교 개혁

13) 뉴먼의 생애 전반에 대해 두 권의 뉴먼 평전 번역서 참조. A. Dulles, 앞의 책; F. 오브라이언, 『평화가 아니라 칼을: 존 헨리 뉴먼의 생애와 메시지』, 분도출판사, 2014.

14) Tierney, *op. cit.*, p.7.

15) 뉴먼이 가톨릭교회와 가진 불편한 관계에 대해 다음 글들 참조. Tierney, *ibid.*, 외에 Martin-Sanchez & Caceres-Munoz, “Cardinal Newman: His Important for Catholic education”, *International Studies in Catholic Education*, Vol. 8, No. 1(2016), pp.30-32.

자였으며, 신학자이자 자유교육자였고, 진리의 구도자이자 교육 개혁론자였다. 실제로 그는 성공회 사제로서 또 다시 가톨릭의 사제로서 격동적인 삶을 살았다. 뉴먼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삶의 역설과 이론적 역설의 문제를 해결할 운명으로 태어났는지도 모른다.¹⁶⁾ 그는 아마도 자신의 삶의 역설들을 그렇게 하였듯이, 교육의 여러 역설들, 즉 신앙과 이성, 진리와 지식, 신학과 과학, 전통과 개혁이라는 역설들을 그의 저서 안에서 화해시키려 한 것처럼 보인다.

뉴먼은 자신의 교육에 대한 사상을 저술하기 시작하였다. 뉴먼은 1851년부터 강의록을 쓰고 있었고, 그 주요 내용은 대학의 목적, 방향, 본성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의 강의들과 논문들을 묶은 『대학의 이념』은 1852년에 출판되었다. 428쪽 분량의 이 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며, 첫 부분인 I~IV장은 ‘대학 교육의 본성에 관한 아홉 가지 담론’(The Nine Discourses on the Scope on Nature of University Education)이며, 아일랜드의 가톨릭 대학의 설립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둘째 부분인 V~VIII장은 ‘대학의 교과목에 대한 강의와 에세이’(Lectures and Essays on University Subjects)로서 뉴먼이 더블린의 가톨릭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술했던 것을 묶은 것이다. 전자가 진리를 추구하는 보편 지식과 이에 기여하는 신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면, 후자는 보편 지식을 전수하는 자유교육의 중요성과 실현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다.¹⁷⁾

뉴먼은 『대학의 이념』에서, 대학을 “대학은 보편 지식을 가르치는 장소이다.”¹⁸⁾ 라고 정의하였다. 그에게 올바른 대학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분화된 다양하고 작은 정보와 개념을 주입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와 개념을 확장하고 전체로 통합하여 하나의 전체 안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¹⁹⁾ 뉴먼에게 대학의 목적은 지적 교육(intellectual education)이었다. 뉴먼은 이 목적을 인간 지성이 사교의 모든 영역과 방식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획득하는 가운데 통합된 지성을 계발하고 그 계발된 지성을 삶으로 살아내는 지성인의 양성(the cultivation of the intellect)으로 보았다.²⁰⁾ 그에게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향후 ‘신사다운 태도와 습성’을 갖추는 뿐 아니라 ‘강력하고 안정적인 통합하는 지성’을 갖추어 자신을 통제하면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능숙하게 다루고 평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²¹⁾ 따라서 그는 대학이 통합적인 지성의 계발과 그것을 삶으로 일치시키는 사회의 선량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도록 준

16) Tierney, *ibid.*, p.9.

17) 유재봉·정철민, 「대학 이념으로서의 자유교육: 뉴먼(Newman)의 “총체적 지식” 개념을 중심으로」, 『教育哲學』, 49(2010), 119쪽; Marin-Sanchez, *op. cit.*, pp.36-37.

18) “It is a place of teaching universal knowledge.” J. H. Newman, *The Idea of a Universit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852/1982. p.ix.

19) Newman, *ibid.*, p.136.

20) Newman, *ibid.*, pp.93-94.

21) Newman, *op. cit.*, p.106.

비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²⁾

뉴먼이 생각하는 대학의 기능 중에는 새로운 지식의 계발에 기여하는 연구(research) 기능이 빠져있다. 이는 대학은 연구(research)하는 장소가 아니라 보편 지식을 전파하고 확장하는 장소라는 그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사학자인 펠리칸(J. Pelikan)에 따르면, 유럽 대학의 역사 안에서 대학의 연구 기능은 주로 베를린 대학이나 괴팅겐 대학 같은 독일 대학의 전통에서 비롯하였다. 독일의 대학들은 연구를 통한 지식의 진보(advancement of knowledge through research)에 초점을 맞춘 반면, 영국의 대학들은 교육을 통한 지식의 확장(extension of knowledge through teaching)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²³⁾ 뉴먼은 옥스퍼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대학의 전통 위에 확고하게 서서 지식의 확산과 확장(diffusion and extension of knowledge)이라는 대학 교육의 위치를 명확히 하였다.²⁴⁾ 그는 만약 대학이 과학적, 철학적 발견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 목적을 둔다면, 굳이 대학생들을 모아 교육하는 대학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²⁵⁾

한 대학의 방향과 목적은 대학 이념에 담겨 있다. 대학 이념은 대학이 추구하는 지식의 유형을 가늠하게 해 준다. 즉 대학에서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지식의 성격과 내용과 방법은 기업과 시장의 그것과 다르며, 당연히 다른 대학의 그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학이 얼마나 본래의 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실천했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추구하는 지식을 충실히 가르쳤으며 그 결과 어떤 인재들을 양성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뉴먼은 대학은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총체적인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럼 다음 장에서 뉴먼이 『대학의 이념』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편 지식의 성격과 보편 지식의 교육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I. 보편 지식

보편 지식이 무엇인지, 왜 이를 추구하며, 또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하는 질문은 대학에 대한 뉴먼의 사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²⁶⁾ 뉴먼에 의하면, 대학(university)는 그 단

22) Newman, *ibid.*, p.125.

23) J. Pelikan, *The Idea of the University: A Reexaminat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2, p.84.

24) 뉴먼은 거의 영국 철학의 기초 위에 서 있었다. 그는 거의 독일 철학을 몰랐던 것 같고, 또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바가 없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서 F. Copleston, *History of Philosophy 8: Bentham to Russell*, the Newman Press, 1966, pp.512-513; 권혁신, 「존 헨리 뉴먼의 [동의를 문법]에 관한 연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각주 10에서 재인용.

25) Newman, *ibid.*, p.ix. "If its object were scientific and philosophical discovery, I do not see why a University should have students."

26) 대학이념과 보편 지식의 연관성에 대해, 유재봉·정철민, 앞의 글, 11-118쪽 참조.

어 자체로써 이미 총체적 혹은 보편적 지식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공언하고 있다.²⁷⁾ 그리고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대학은 ‘보편적’(universal) 지식을 가르치는 최상위 교육 기관이다.²⁸⁾

대학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이해는 흔히 어원적 고찰에서 도움을 받는다. 대학의 영어 단어인 university는 라틴어 *universitas*에서 유래했다. 이는 라틴어 *unum*과 *versus*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영어의 one과 toward, 혹은 toward to one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우리는 one의 의미를 *in unum vertere*, 즉 다양함(다름)의 통합(unity of the diverse)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는 본성상 통합(synthesis)과 일치(unity)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은 정신과 문명의 발달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 사실과 발견,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통합하고 일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²⁹⁾ 따라서 대학이 일차적으로 지향하는 지식은 진리를 담보한 보편 지식일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12세기 무렵 대학 제도의 발생 초기부터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는 통합과 일치의 좋은 모범이 되었다. 중세의 대학들은 비단 지식과 학문의 통합(*universitas studiorum*) 뿐 아니라 배우는 학생과 가르치는 교수의 연합체 혹은 공동체(*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를 의미했다.³⁰⁾ 이는 대학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일치하는 진정한 ‘학생-교수 공동체’를 의미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07년 6월에 유럽의 가톨릭 교수들에게 한 강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회는 대학 공동체가 제공하는 지혜의 봉사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이 봉사는 인간 존엄성을 증진시키고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는 연구와 활동까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 교수들은 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시대의 예언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훈련시키는 지적인 자애와 덕(intellectual charity and virtue)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다양한 학문들이 자신의 고유한 방식을 보존하는 가운데 위대한 하나(a greater *unum*)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학이 정말 긴급하게 수행할 일은 오늘의 많은 대학에서 자주 목격되는 학문의 파편화와 비공동체성의 경향에 맞서 지식의 통합(unity of knowledge)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³¹⁾

27) Newman, *ibid.*, p.ix. “A University, I should lay down, by its very name professes to teach universal knowledge.”

28) Newman, *ibid.*, pp.20-21.

29) Z. Grocholewski, “Be Excellent, be Catholic!: The Mission of Catholic Higher Education for New Evangelization”, The 21st ASEACCU Conference “New Ardor, New Method, New Expression” Hosted by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nd East Asian Catho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Aug. 22-25, 2013,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24.

30) 박승찬, 앞의 글, 12쪽 참조. “[...] 대학 발생 당시 초기에는 학문적 보편성(universality)이나 우주적(universal)의 의미를 내포하기 보다는 당시의 이발사나 목수 등의 조합(guild)과 같은 의미로 배우는 학생과 ‘교수들과 학생들의 연합체’를 의미하였다.”

31) Benedict XVI, Address at the Meeting of European University Lecturers, Rome 23, 06. 2007.

뉴먼이 생각한 대학의 목적은 지성인의 양성이다. 그에 의하면, 대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지성인이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대학 교육은 학생들이 학문 혹은 전공 중심의 단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배우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보편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참된 지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뉴먼에 따르면, 보편 지식은 지식들의 묶음이 아니다. 보편 지식은 나름 고유한 지식의 형식을 갖춘 학문들을 깊은 차원에서 통합한 것이다. 보편 지식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적 안목 또는 보는 습관(*habit of viewing*)을 갖는다.³²⁾ ‘보는 습관’은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며 일종의 정신의 계발이다.³³⁾ 이러한 정신의 계발은 단시일에 습득될 수도 없고 장시간의 지적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지적 훈련이란 보편 지식을 추구하는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뉴먼의 보편성(*universality*) 개념은 그의 “모든 지식은 하나의 보편성을 지닌다.”³⁴⁾는 명제에서 잘 드러난다. 뉴먼은 이 명제를 두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지식의 보편성이란 첫째, 모든 지식 또는 모든 학문의 산술적 합을 의미한다. 뉴먼은 지식의 보편성이란 모든 형태의 지식을 망라하는 것이며, 이는 곧 각 학문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모든 학생을 받아들이는 태도까지 포함한다면, 이렇게 말한다. “[대학 교육에서] 어떤 특정한 학문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그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제외시키는 것이다.”³⁵⁾

둘째, 하지만 뉴먼에게, 지식의 보편성이란 단순한 지식의 산술적 합을 넘어 이들의 유기적 통합을 의미한다. 즉 지식의 보편성이란 어떤 지식 혹은 지식의 형식들이 자신과 다른 것들로부터 고립되거나 독립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만들어 “총체(*a whole*) 또는 하나의 체제(*system*)를 형성함을 의미한다.”³⁶⁾

그에 의하면, 학문의 유기적인 통합은 단순한 학문 간의 타협이 아니라, 비판적 논쟁(*argument*)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그는 진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비판적 논쟁을 통해 도달하는 지적 통합 과정이야말로 대학의 존재 이유가 된다면, 이렇게 말한다. “[...] 대학은 그저 모든 예술, 과학, 역사, 철학 등 독립적인 학문들이 한데 모여드는 학문들의 쉼터(*a caravan serai*)가 아니다.”³⁷⁾ 그는 대학이 모든 학문들을 모아놓은 ‘동물원’(*zoo*) 같은 곳이 아니라, 진리의 이름으로 협력하는 곳이라고 강변한다.³⁸⁾

Grochowski, *op. cit.*, pp.24-25에서 재인용.

32) Newman, *op. cit.*, p.136.

33) 이정민 · 손종현, 「존 헨리 뉴먼의 <대학의 이념>의 재해석」, 『도덕교육연구』, 23(2011.12), 147쪽.

34) Newman, *ibid.*, p.38.

35) Newman, *ibid.*, p.15.

36) Newman, *ibid.*, p.162.

37) Newman, *ibid.*, p.344.

38) Tierney, *op. cit.*, p.9.

대학을 설립하는 일은 나에게 아주 고된 일이면서 동시에 아주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여러 학문들이] 진리(Truth)의 이름으로 협력한다면 나는 맹세코 어떤 두려움이나 선입견이나 타협 없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이질적인 그들의 관점과 경험과 정신적 습관을 [진리의 이름]으로 교정하기 위해...³⁹⁾

뉴먼이 강조하였던 보편 지식 추구라는 대학의 목표는 그의 저서에서 사용한 대문자 철학(Philosophy)과 관련이 있다. 대문자 철학은 학문의 한 영역인 소문자 철학(philosophy)과는 달리, “단지 사물에 관한 지식이 아닌 사물들의 진정한 상호 관계에 관한 지식이며, 단지 습득으로서의 지식이 아닌 철학으로서의 지식”⁴⁰⁾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문자 철학은 진리의 총체 혹은 보편 지식과 다르지 않다.⁴¹⁾ 인간은 인문학, 철학, 과학, 신학에 이르는 모든 학문 분야를 망라하는 보편 지식에 입문함으로써 진정한 철인(哲人)이 된다. 철인으로서의 인간은 선입견이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아집과 편파적인 경향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결국 뉴먼의 대학 교육은 보편 지식을 지닌 진정한 철인, 신사(gentleman). 또는 참된 지성인을 양성하는 것이다.⁴²⁾

뉴먼에 의하면, 올바른 대학 교육을 통해 보편 지식을 습득한 참된 지성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첫째, 지성인은 사물들을 분절시키거나, 과도하게 단일한 사실이나 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인 전망 안에서 모든 것을 연결시켜 보는 관점을 지닌다.⁴³⁾ 또 뉴먼은, 단편적인 지식이나 주제에만 집중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릇된 습관을 갖게 되고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전망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조차 자기에게 익숙한 단편적인 지식이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⁴⁴⁾ 뉴먼은 “한 주제에 대해서만 의지하여 생각하는 습관이 된 사람은 바로 그 분야에서조차도 훌륭한 판단을 결코 할 수 없다.” 고 한다.⁴⁵⁾

둘째, 뉴먼에 의하면, 진정한 지성인은 독창적이고 품위가 있으며, 솔직하고 공정하며,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며 섬세한 취향과 정중하고 자연스럽다. 또한 근시안적으로 성과에 안달하지 않고 스스로를 재촉하지 않으며 인내하고 삶을 즐길 줄 안다. 더불어 문학이나 예술, 역사, 공공의 사안에 대해서도 쉽고 분별력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지식

39) Newman, *ibid.*

40) Newman, *ibid.*, p.101; Denig, *op. cit.*, p.165.

41) Newman, *ibid.*, p.38.

42) 유재봉·정철민, 앞의 글, 122쪽.

43) Newman, *op. cit.*, p.99.

44) Mulcahy, “Cardinal Newman’s Concept of a Liberal Education”, *Educational Theory*, 22, 1972, pp.87; 손서정, 「존 헨리 뉴먼의 교육사상: [대학의 이념]을 바탕으로」(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44쪽 재인용.

45) Newman, *ibid.*, pp.75-76.

을 갖는다.⁴⁶⁾

셋째, 뉴먼에 따르면, 지성인은 자기 스스로나 타자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성인은 자신과 타인을 인내로써 포용하며 독단적이지 않고 겸손하다.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게 주의 깊게 행동한다. 수줍어하는 이에게 다정하며 마음이 약하고, 우유부단한 이에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격려하고, 냉담한 이들도 자비로운 시선으로 대한다.⁴⁷⁾

여기서 유의할 것은 뉴먼의 보편 지식이 결코 도구적, 수단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보편 지식이 모든 지식을 아우르고 통합하여 지성인을 양성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식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지식(knowledge as its own end)이며, 교육은 지식의 유용성이나 외재적 가치에 치중하기 보다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변한다. 지식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이유는 지식 추구가 인간 본성의 직접적인 요구이며 인간 정신의 구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⁴⁸⁾ 또 지식을 통한 정신의 계발은 그 자체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개인과 인류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는 보물이기 때문이다.⁴⁹⁾

뉴먼은 합리적 이성으로 전개되는 사고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인식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인식한 대상을 배열하는 능력이다. 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한 주제와 씨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며, 후자는 인식된 대상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다.⁵⁰⁾ 따라서 그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식 내용을 획득하게 도와 줄 뿐 아니라, 인식한 것들에 올바른 판단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합리적 이성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V. 신학 교육

우리는 뉴먼이 교육자이자 가톨릭 사제요 신학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아일랜드 가톨릭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초대 총장이었던 그가 신학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보편 지식과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였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뉴먼에 의하면, 대학 이념과 보편 지식의 개념은 신학을 배제하고는 달성할 수 없다. 『대학의 이념』의 후

46) Newman, *ibid.*, pp.89-90.

47) Newman, *ibid.*, p.159.

48) Newman, *ibid.*, p.79.

49) Newman, *ibid.*, p.85.

50) 유재봉·정철민, 앞의 글, 122-123쪽.

반부인 V~VIII 장은 보편 지식을 위한 자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할애되었다면, 전반부인 I~IV 장은 진리 추구를 통한 보편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신학의 회복이 절실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뉴먼이 더블린에 가톨릭 대학을 설립하던 19세기 중반기는 교육에서의 종교의 위치와 교육의 목적에 관한 논쟁이 활발했던 시기였다. 당시 대학 교육에서 신학이 배제된 것은 산업화와 더불어 학문과 교육의 세속화로 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뉴먼에 의하면, 모든 대학, 특히 가톨릭 대학이 추구해야 할 지식은 특정 목록의 완성이나 지식의 주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롭고(mysterious) 불가해하고(unfathomable), 보편적인(universal) 충만함(fullness)을 지녀야 한다.⁵¹⁾ 이를 위해 대학 교육은 신학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그는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 “대학(University)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점만 생각해도, 대학이 신학을 배제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⁵²⁾

뉴먼에 따르면, 사람은 신학이 모든 지식을 확장하도록 도울 때 비로소 보편 지식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인간 이성의 온전한 발달 역시 신학의 형이상학적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뉴먼은 대학이 보편 지식을 추구하는 한, 신학은 다른 교과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⁵³⁾ 만일 대학 교육과정에서 신학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자유교육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이며 자유교육을 해치는 일이라고 보았다.⁵⁴⁾

뉴먼이 보았던 보편 지식 형성에 있어서의 신학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학은 모든 관습, 법, 교육 등의 바탕이기 때문에 진정한 이성의 발달은 신학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⁵⁵⁾ 둘째, 신학은 학문의 한 분야로서 인간의 정신이 신비에 접촉하고 어떤 초월성을 지향하도록 형이상학적이고 심미적인 차원으로 정신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셋째, 신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적 변화와 전인적인 변화를 발생시킨다.⁵⁶⁾

이처럼 신학은 인간 내에서 잠재하는 신적 초월성과 접촉하여 지식을 통합하여 유기적인 지성을 확장하는 힘을 갖고 있다. 뉴먼은 신학의 두 가지 특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그는 그것을 신학의 무한성과 진리성으로 정의했다.⁵⁷⁾

무한성은 신학의 첫째 특징이다. 신학은 무한성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학문들의 고유한 주제와 연구 방법을 존중하면서도 총괄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을 탐구하게 한다. 신학은 앞에서 언급한 대문자 철학(Philosophy)과 보편 지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무한한 초월적 실재를 형이상학의 주제로 삼고 나아가 그와 일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문

51) Newman, *op. cit.*, p.347.

52) Newman. *ibid.*, p.31.

53) Newman, *ibid.*

54) 손서정, 앞의 논문, 49쪽.

55) Newman, *ibid.*, p.21.

56) 유재봉·정철민, 앞의 글, 124쪽.

57) 같은 글, 126쪽.

자 철학과 차이를 보인다. 뉴먼은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철학은 하나의 실재를, 가령 인간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학문들의 학문’이라 일컬을 만하나, 신학은 이성과 계시를 조화시킴으로써 얻게 된 실재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진리의 세계로 간주할 수 있다.⁵⁸⁾

가톨릭교회의 문헌들은 가톨릭 대학 안에서 신학의 존재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⁵⁹⁾ 추구하는 지식의 통합과 신앙과 이성의 일치성을 위한 신학의 공헌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신학(Theology)은 신앙과 이성의 대화 뿐 아니라 전체적 지식들을 탐구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학은 다른 학문들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먼저 신학은 각 학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연구결과물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철저히 고려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연구 방법론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관점과 방향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준다.⁶⁰⁾

신학의 둘째 특징은 진리성이다. 신학이 다루는 실재는 대문자 진리(Truth)이다. 즉 신학이 추구하는 지식은 ‘신’이라는 존재적 진리에 향해 있고 모든 인식론과 가치론이 그 위에 토대를 두고 있다. 뉴먼에 의하면, 신학은 이 진리 안에 모든 학문을 모아들인다. 즉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등 모든 학문은 각기 고유한 연구 주제와 방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학과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지식은 그것이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신학이 추구하는 진리를 분유(分有)하고 있는 것이다. 신학의 진리성은 대학, 특히 가톨릭 대학 안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가 된다.⁶¹⁾

가톨릭 대학(Catholic university)이 신학을 중심으로 지식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가톨릭’의 어원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명확해진다. 가톨릭 대학의 특성인 카톨릭 시티(catholicity)는 그리스어 *Katholikos*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는 전치사 *kata*(영어 regarding)와 형용사 *holos*(영어 the whole)의 합성어다. 여기서 이 단어의 어원은 가톨릭 대학이 전체성(wholeness), 진리의 총체성(totality of truths)을 본성적으로 추구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가톨릭 대학 안에서 진리의 추구는 모든 연구와 교육보다 항상 우선시 되고, 또 대학의 모든 활동의 목적이 된다. 가톨릭 대학의 특별한 과업은 학생, 교수, 직

58) Newman, *op. cit.*, pp.45-46.

59) 교회 문헌 안에 나타난 가톨릭 대학 안에서의 신학의 중요성에 대하여, 요한 바오로 2세, 앞의 문헌, 15, 16, 19, 20, 29, 32, 46, 49항, 최준규, 앞의 글, 51, 최준규 외, 앞의 글, 200쪽 참조.

60) *Ex Corde Ecclesiae*, 19항.

61) 유재봉·정철민, 앞의 글, 126쪽.

원 등 모든 구성원이 진리에 봉사하게 하는 것이며, 그들이 진리의 주인이 아니라 진리의 제자라는 사실을 자주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⁶²⁾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1년 8월에 세계의 가톨릭 대학의 교수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가톨릭 교수들이 진리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진리 자체는 항상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여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만, 결코 완전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거꾸로 진리가 우리를 소유하고 격려합니다. [...] 우리는 학생들을 우리 자신에게 이끌지 말고, 진리로 향하는 길을 걷도록 해야 합니다.⁶³⁾

뉴먼은 (가톨릭) 대학이 신학의 조명을 받은 자유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세대로 하여금 보편 지식을 갖추고 궁극적으로 진리를 따라 살게 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실제로 가톨릭 대학은 전통적으로 과거의 지식의 전수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그들이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보편 지식에 바탕을 둔 다양한 형태의 자유교육을 실시하여 왔다.⁶⁴⁾

V. 결론: Be Catholic, Be Excellent!

지금까지 뉴먼의 『대학의 이념』에 나타난 그의 교육 사상을 살펴보았다. 뉴먼의 교육 사상은 한마디로 ‘진리에 입각한 신학적 조망을 통한 보편 지식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뉴먼이 생각한 대학의 목적은 지성인의 양성이었다. 지성인은 사물과 문제를 전체적인 전망 안에서 ‘보는 습관’을 지니며, 품위 있고 자유로우며 포용과 자비의 태도를 갖춘 사람이다. 이런 지성인을 배출하기 위하여 대학은 다양한 학문들을 통합한 총체적인 보편 지식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하며, 이때 신학은 모든 지식을 진리로 인도하고 일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논문은 현대의 가톨릭 대학들이 외부의 거센 도전들을 극복할 이론적, 실천적 지혜를 19세기 영국의 교육자이며 추기경이었던 존 헨리 뉴먼으로부터 찾아보려는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가톨릭 대학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일반

62) Z. Grocholewski, *op. cit.*, p.25.

63) Benedict XVI, Address at the Meeting of Young University Teachers, Madrid, 19.08.2011; Z. Grocholewski, *ibid.* 에서 재인용.

64) 가톨릭 대학의 인문교육과 자유교육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김평만, 임선희, 오승민, 「의학교육에서 가톨릭 정신의 구현」, 『인간연구』 vol. 21(2011), 81-109쪽; 이종진, 「가톨릭 인본주의와 대학의 역할」, 『인간연구』 vol. 22(2012), 83-110쪽; Paul S. Coakley, 「Catholic Humanism and Catholic Universities」, 『인간연구』 vol. 22(2012), 207-215쪽.

대학으로서 수월성(excellence)을 추구하는 동시에 가톨릭 교육 기관으로서 ‘가톨릭’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수월성과 정체성의 추구라는 이중적 요구는 언뜻 논리적 모순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가톨릭 대학은 자신의 뚜렷한 종교적 색채 때문에 특정 지식과 연구, 재정 투자, 기금 모집, 우수 학생과 교수 유치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다른 비(非)가톨릭 대학들과 수월성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가 “A Catholic university is a contradiction in terms.”⁶⁵⁾ 라면서 가톨릭 대학(Catholic University)은 ‘용어상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풍자한 것도 한 예일 것이다. 쇼(Shaw)에 의하면 대학(university)이란 용어는 본성상 모든 지식과 학문을 망라하면서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를 표현하는 용어이지만 반대로 가톨릭(Catholic)이란 단어는 교회의 도그마를 연상시키며 대학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종교적, 교리적, 제도적인 경계를 표현하는 용어이니, 가톨릭 대학이 수월성과 정체성의 목표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⁶⁶⁾

뉴먼은 수월성과 정체성 제고라는 자칫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논리적 모순(contradiction)을 역설(paradox)로 바꾸어 훌륭하게 해결해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먼의 삶은 역설로 가득한 여정이었다. 그는 성공회 사제에서 가톨릭 추기경으로 극적인 종교적 전환을 경험했으며, 또 복음적 근본주의자에서 종교적 자유주의자로, 다시 가톨릭 교도권의 옹호자로서 활동했었다. 뉴먼은 자신의 이런 다변적인 삶의 여정을 상호 모순으로 보지 않았고, 상호 공존과 화해 가능한 역설로 보았다. 역설은 표면상으로는 자기 모순적이고 부조리로 보이나 해석의 과정을 통해 그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현상이나 진술을 말한다.⁶⁷⁾ 예를 들어 선과 악, 빛과 어둠, 추위와 더위, 들숨과 날숨 등은 모순처럼 보이고 부조리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공존하며, 상반된 서로를 받아들임으로써 화해를 하고 전체를 이룬다.

뉴먼은 일종의 삼단논법(三段論法, syllogism) 방식으로 가톨릭 대학의 수월성과 정체성의 역설을 설명한다. 뉴먼에 따르면 대학의 목적은 보편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며, 보편 지식은 다양한 학문의 지식의 산술적 합이자 통합이다. 그리고 만약 대학(교육)의 수월성은 교육(지식)의 양이 아니라 ‘질’(quality)에 관련된 개념이라면, 또 ‘질’은 목적에의 적합성(fitness for purpose)을 의미한다면, 그래서 만일 대학이 자신의 존재 이유인 보편 지식의 전수를 완수했다면, 바로 그 대학은 최고 수준의 수월성을 성취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65) M. Roche, *The Intellectual Appeal of Catholicism and the Idea of a Catholic University*,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3, p.1.

66) G. D. O'Brien, *The Idea of a Catholic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p.1.

67)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역설”,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출처: NAVER 지식백과).

가톨릭 대학의 목적은 보편 지식뿐 아니라 초월적인 신적 진리를 전수하는 것이며, 가톨릭 대학은 교회의 심장부로부터 탄생하여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론적 정체성을 지니므로, 한 가톨릭 대학이 자신의 목적과 가톨릭 정체성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그 대학은 역시 최고 수준의 수월성을 성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톨릭 대학의 수월성은 그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물론 뉴먼의 이러한 논증이 21세기 우리의 사회적, 시대적 맥락에서 여전히 타당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될 수 있다. 바넷(Barnett)의 주장처럼, 현대 사회는 초복잡성(supercomplexity), 불확실성(uncertainty),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 등을 특징으로 하고, 이에 대학 교육은 학생들에게 지식 현상에 대한 재구조화 능력, 비판적 검토 능력, 비판적 행동 능력 등을 길러줘야 한다.⁶⁸⁾ 이런 시대적 맥락에서 뉴먼의 보편 지식에 대한 종교 인식론적 고찰은 그 현대적 적합성을 재검토할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오늘의 포스트모던 상황은 상대적 지식, 맥락적 지식, 국지적 지식, 작은 담론 같은 보편적 가치보다는 다원적 가치를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뉴먼의 대학이념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⁶⁹⁾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적합성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뉴먼이 주장했던, 대학 이념은 자유교육의 이상을 추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편 지식을 가르쳐야 하며, 또 보편 지식은 신학의 조명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은 오늘날 지나치게 지식의 도구적, 직업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우리 대학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대학, 특히 가톨릭 대학을 위해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톨릭 대학은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진리, 신학, 지식의 통합, 보편 지식, 지성인 양성 같은 가톨릭 특성(catholicity)을 잘 표현하는 개념들을 대학 이념과 사명선언문 또는 교육과정 안에 명확히 적시하고 또 대학의 모든 정책과 활동에 깊이 반영해야 한다. 둘째, 각박한 대학 세계의 수월성 경쟁 속에서 가톨릭 대학은 자칫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거짓된 중립성’(fake neutrality)으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유혹을 단호하게 극복해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가톨릭 대학은 진정한 가톨릭 특성을 잘 표현할 때 자신의 수월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고,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Be Catholic, Be Excellent! 이 모토는 어떻게 가톨릭 대학을 가장 훌륭한 대학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또 이는 세계 모든 가톨릭 교육 기관이 수행해야 할 진정한 목표이자 전략이다.

68) R. Barnett, *Realizing the University in an Age of Supercomplex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2000a, p.63; R. Barnett, *University Knowledge in an Age of Supercomplexity*. *Higher Education*, 40(2000b), p.420; 두 인용의 출처는 유재봉·정철민, 앞의 글, 128쪽.

69) 유재봉·정철민, 같은 글, 128-129쪽.

참고문헌

- 권혁신, 「존 헨리 뉴먼의 [동양의 문법]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김성태, “옥스퍼드 운동”, 『한국가톨릭대사전』, 제9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 김평만 · 임선희 · 오승민, 「의학교육에서 가톨릭 정신의 구현」, 『인간연구』 vol. 21(2011).
- 박승찬, 「중세 대학의 설립과 발전: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보루」, 『가톨릭철학』, 26 (2016).
- 손서정, 「존 헨리 뉴먼의 교육사상: [대학의 이념]을 바탕으로」(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Ex Corde Ecclesia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63(1990.12).
- 유재봉 · 정철민, 「대학 이념으로서의 자유교육: 뉴먼(Newman)의 “총체적 지식” 개념을 중심으로」, 『教育哲學』, 49(2010).
- 이종진, 「가톨릭 인본주의와 대학의 역할」, 『인간연구』 vol. 22(2012).
- 이종진, 「존 헨리 뉴먼의 [대학의 이념]에 비추어 본 한국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철학』, 26(2016).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Gravissimum Educationis*: GE)」(1965. 12. 28),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 지정민 · 손종현, 「존 헨리 뉴먼의 <대학의 이념>의 재해석」, 『도덕교육연구』, 23(2011.12).
- 최준규 외, 「가톨릭고등교육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6(2008).
- 최준규, 「가톨릭 대학과 가톨릭 정체성: *Ex Corde Ecclesiae*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35(2011.2).
- 한국문화평론가협회, “역설”, 『문화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출처: NAVER 지식백과)
- 한국천주교주교회의교육위원회, 『가톨릭 학교 교육 현장』,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미간행), 2006.
- 한국천주교주교회의교육위원회, 『한국의 가톨릭대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규정』,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미간행), 2011.
- Barnett, R., *Realizing the University in an Age of Supercomplex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2000a.
- _____, *University Knowledge in an Age of Supercomplexity*. *Higher Education*, 40(2000b).
- Benedict XVI, *Address at the Meeting of European University Lecturers*, Rome 23, 06. 2007.
- _____, *Address at the Meeting of Young University Teachers*, Madrid, 19. 08. 2011.
- Burtchaell, J. *The Dying of the Light: The Disengagemen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from Their Christian Churches*,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98.

- Coakley, P. S., 「Catholic Humanism and Catholic Universities」, 『인간연구』 vol. 22 (2012).
- Copleston, F., *History of Philosophy 8: Bentham to Russell*, the Newman Press, 1966.
- Denig, S., “What would Newman do?: John Cardinal Newman and *Ex Corde Ecclesiae*”, *A Journal of Inquiry and Practice*, Vol. 8, No. 2(December 2004).
- Dulles, A., 『존 헨리 뉴먼』, 윤성희 역, 성바오로, 2010.
- Galin, A. (ed.), *American Catholic Higher Education: Essential Documents, 1967-1990*,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1992.
- Grocholewski, Z., “Be Excellent, be Catholic!: The Mission of Catholic Higher Education for New Evangelization”, The 21st ASEACCU Conference “New Ardor, New Method, New Expression” Hosted by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nd East Asian Catho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Aug. 22-25, 2013,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Martin-Sanchez & Caceres-Munoz, “Cardinal Newman: His Important for Catholic education”, *International Studies in Catholic Education*, Vol. 8, No. 1(2016).
- Morales, J., “Newman’s Idea of a University Makes Sense Today.”, *Christian Higher Education*, Vol. 2, No.3(2013).
- Mulcahy, D. G., “Cardinal Newman’s Concept of a Liberal Education”, *Educational Theory*, 22, 1972.
- Newman, J. H., *The Idea of a University*. edited by Martin J. Svaglic,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852/1982.
- O’Brien, G. D., *The Idea of a Catholic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 O’Brien, F., 『평화가 아니라 칼을: 존 헨리 뉴먼의 생애와 메시지』, 분도출판사, 2014.
- Pelikan, J., *The Idea of the University: A Reexaminat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2.
- Roche, M., *The Intellectual Appeal of Catholicism and the Idea of a Catholic University*,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3.
- Tierney, W., “Portrait of Higher Educ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hn Henry Newman’s ‘The Idea of a University’”, *Leadership in Education*, Vol. 19, No. 1(2016).
- Whittle, S., “Newman and Contemporary Debates about Catholic Education”, *New Blackfriars*, 96(2015).

원고접수일 : 2016년 6월 18일 심사일: 2016년 6월 25일 게재확정일: 2016년 7월 4일

연구자소개 : 최준규

① 전공: 교육행정학, 종교교육학 / 소속 :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화영성대학원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가톨릭 학교 교육, 영성 교육, 고등교육

③ 주요논저: 가톨릭 대안 교육, 가톨릭고등교육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④ E-mail: runnerchoi@catholic.ac.kr

Abstract

Strategies for Realization of the Catholic Identity in Catholic Education: Based on Newman's 『The Idea of a University』

Jun Gui Choi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oday the problems facing the religious education mostly relate with its religious identity of each educational institution. The Catholic education also has confronted the challenges to promote both its excellence and religious identity, as other disciplines and educational sectors have done. John Henry Newman who was the most famous educator and a Catholic cardinal in the nineteenth century's Europe professed to clear direction for the Catholic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is study discussed about the Catholic identity to which Catholic education should pursue based on his renowned book 『The Idea of a University』. To achieve its purpose, the paper briefly sketched about the life and thoughts of Newman. Then, it examined its values and roles of the universal knowledge that Newman proposed as a key concept of pursuing the idea of a university based on the institutional identity. Third, it discussed about need and role of theology in formation of universal knowledge. According to him, theology is both a part of and a condition of universal knowledge. Finally it proposed strategies of how the Catholic education promote both excellence and identity as its challenge and a goal.

Key words: John Henry Newman, idea of a university, universal knowledge, theology, liberal education, the intellect